____월 ____일

다음은 기사의 일부분입니다. 소리 내어 기사를 읽고 또박또박 베껴 써 보세요.

(생략) 망가진 인형을 고쳐주는 인형병원이 인기다. 찾아오는 손님은 어린 시절 갖고 놀던 인형을 10년 넘게 보관하고 있는 어른들이 대부분이다. 지난해 6월 국내 최초로 인형수선집에 '병원'이란 이름을 붙인 김갑연 토이테일즈 원장은 "추억이 담긴 인형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병원'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다"며 "40년 넘은 인형을 정성스레 싸와 고쳐달라고 부탁한 중년 여성도 있었다"고 했다. (생략)

봉제인형 역사가 긴 서양에서는 생긴 지 100년 넘은 인형병원을 찾기 어렵지 않다. 미국 뉴욕의 '뉴욕 인형병원'은 1900년에 문을 열었고, 포르투갈 리스본에는 1830년 문을 연 것으로 알려진 인형병원이 아직도 운영 중이다. (생략)

– 조선일보 2018년 1월 9일





이 기사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알맞은 제목을 써 보세요.

정답은 100쪽에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신문 기사 중 마음에 드는 문장을 써 보세요.